특별기고

포천문예대학을 마치면서

'포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 창구'

이 호 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필자는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삶의 단면을 시의 형태를 빌어 기록해 왔다. 우연한 기회에 모 시인을 만났는데 지도도 받을 겸 필자의 작품을 건네 드렸다. 첫 말씀이 시에서는 주관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면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고, 그 분의 배려에 의해 월간 한맥문학을 통해 시 부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

시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필자로선 이론부문에 대해 항상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포천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포천문예대학을 개강한다는 공문을 접하게 되었다. 오랜 가문 중 단비를 만나는 반가움을 느꼈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강일인 4월17일 저녁 7시에 개강식에 참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난생 처음 수강해 보는 詩論. 안익수 시인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수강생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강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본다.

詩란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느끼고 감성도 다르다. 詩란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감상하게 되므로 詩人의 詩想과 다르다고 언짢아해서는 안 된다. 좋은 詩란 가장 짧고, 간결하면서 의문을 던져주는 詩이다.

詩의 기본은 形容詞를 쓰지 않는 것이다. 形容詞는 내용을 한정하고 제한하기 때문이다. 詩란 단어의 집합으로 공백은 독자가 메워나간다. 단어의 집합이 생소한 언어일지라도 독자는 의식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므로 독자는 이해한다. 對象에게 말을 걸어보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연상되는 낱말을 적어 여기에다 의식의 징검다리로 내용을 작성하고 살을 붙이는 것이 詩다.

詩의 사계절인 生, 老, 炳, 死에 연결해서 詩를 쓰면 자연적으로 감동을 주게 된다. 詩.를 쓸 때 生, 老, 炳, 死가 잘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詩人은 문화의 전달자요 정신적인 방랑자이다. 詩의 素材는 지금까지 자연에서 인간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인간의 목소리를 자연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詩의 素材를 빵에서 찾았으나 이제는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詩란 이미지(image)의 형상화인데 이미지(image)는 상상력을 의미한다.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것은 호기심이다. 詩人은 모든 사물을 거꾸로 보아야 한다. 별을 보지말고 별과 별 사이를 보아야 하며 이미지(image)의 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여러 교수님들의 문학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 감동적인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다음 문예대학을 개강하면 많은 수강생들이 재수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시인은 문화의 전달자라고 했다. 굴뚝 없는 산업인 문화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인을 포함한 예술인이다.

특히 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토후국인 두바이는 과연 소문대로 천지개벽이 진행되는 곳이다. 온갖 상상이 속속 현실로 변하고 있다. 세계 타워크레인의 20%가 이곳에 몰려 있다. 곳곳이 밤낮없이 공사판이다. 야자수 모양의 초대형 인공 섬이 3개나 건설 중이고, 사막의 땡볕을 비웃듯 400m 슬로프를 갖춘 실내 스키장도 명물로 등장했다.

어디 그뿐인가. 축구장 80개가 들어가는 초대형 쇼핑몰에다, 디즈니랜드의 8배나 되는 넓은 두바이 랜드도 머지않아 등장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 제일의 금융 허브(hub)로 변하고 있다. 두바이에선 무조건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다.

이처럼 삭막한 사막에 불과한 두바이가 상전벽해가 되도록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59) 총리다. 그는 시인이기도 한다. 시인인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에게서 발현되는 상상력과 추진력, 통찰력과 경쟁력 등 사력(4力)을 통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막에 도시는 얼마든지 건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디자인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인을 포함한 예술인의 몫이다.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 40의 1 일대 채석산 부지에 조성해 온 '포천 아트밸리(Art Valley)'가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인근에 동아대학교 예술대학학장을 역임하신 김광우 교수님께서 2006년2월부터 디자인한 공간이라고 한다. 포천시가 흉물로 버림받을 폐석산을 야심차게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인만이 삶의 공간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육의 산실이기도하다.

이처럼 문화의 전달자인 예술인을 육성하고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단연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포천문예대학의 개강은 포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예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시되어야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韓國의 선비정신 · 105

도끼 날이 네 목을 자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구나!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권필이 젊어서 처음 벼슬에 올랐을 때,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의 권세가 대단하였다. 어느 날 권필이 친척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 누웠는데, 마침 유희분이 들어서면서 권필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일어나! 유희분이 왔다."

권필이 눈을 부릅뜨고 유희분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네가 유희분이냐? 네가 부귀를 누리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나라가 망하면 네 집도 망할 것인데, 도끼 날이 유독 네 목을 자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구나!"

그 말을 들은 유희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참혹한 얼굴로 나가버렸다. 훗날 유희분은 그를 무고하여 귀양가도록 했다.

시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권필이 일찍이 한가한 벽촌 마을을 지날 때였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자 그는 고을 좌수(座首)의 집으로 잠시 몸을 피하였다. 좌수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 대청에 대여섯 명의 선비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있었다.

권필은 초라한 차림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구석에 끼여 앉으며 선비들에게 인사를 청했다. 선비들이 권필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자리에 불쑥 뛰어드는가?"

권필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라서 벼슬은 할 수도 없고 장사나 좀 해보려고 마을로 가는 중이오. 길을 가다가 마침 흥에 겨워 있는 선비들의 모습을 보고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싶어 들어왔소이다."

술잔을 들고 글을 짓던 선비들이 권필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시를 짓는 취미에 대해 자네도 좀 아는 바가 있는가?" "어찌 나 같은 비렁뱅이 장사치가 감히 시를 짓는 취미를 알겠소? 글을 짓는 취미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선비들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사물을 보고 감동되어 흥취가 돋우어지면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글로 옮기는 것이라네. 그래서 시를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네." 그 중 한 선비가 자신이 지은 시를 자랑하며 말했다. "이태백이 살아 있어도 내가 지은 글귀만은 못할 것이로세." 곁에 있던 다른 선비도 나섰다.

"내가 지은 구절은 두보도 못 쫓아올 것이네."

또 다른 선비가 말하였다.

"자네들이 지금 글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칫 내 시가 꺾여질까 두렵네." 좌우의 선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꺾여질까 두렵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선비는 제법 정중하게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 너무 높으면 바람에 꺾이지 않는가? 내 시도 품격이 너무 높으니 자칫 꺾일까 두렵다는 말일세." 듣고 있던 여러 선비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한 선비가 권필에게 술 한잔을 부어주면서 말했다.

"자네는 글을 짓지 못한다니 속담 같은 글귀라도 하나 만들어서 술자리를 즐겁게 해보게."

그러자 권필은 술 한잔을 맛있게 비우고 나서 읊기 시작했다.

문무(文武)를 아울러 배웠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으니 선비도 아니고 장수도 아닌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네. 훗날 그대들이 혹시 한양에 오는 날이 있으면 물어보게 주막집 아이들도 내 이름을 외우리. 선비들이 이상한 듯 얼굴을 마주보며 중얼거렸다. 한 선비가 물었다. "시는 훌륭하오만, 대체 그대는 누구기에 주막집 아이들이 이름을 외운단 말이오?"

그러자 권필은 그 선비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이름은 권필이오."

여러 선비들이 깜짝 놀라 엎드려 절하고, 그를 이끌어 상좌에 앉히며 술을 권했다.

권 필

1569년(선조 2)~1612년(광해군 4).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술과 친구를 좋아하고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벼슬을 하지 않은 채 야인으로 일생을 마쳤다. 동료들의 추천으로 제술관(製述官)이 되고, 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며, 강화에서 많은 유생을 가르쳤다.

광해군 초에 권신 이이첨이 교제할 것을 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유희분(柳希奮)의 전횡을 시로 풍자하였는데,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이에 연좌되어 해남으로 귀양가다가 동대문밖에서 행인들이 동정하여 주는 술을 폭음하고 이튿날 44세로 숨을 거두었다. 저서로 『석주집』, 『주생전(周生傳)』등이 있다.

뮤지컬 이야기 #54

1950년대 뮤지컬 개요 – 브로드웨이(Broadway)

전 세계 무대 뮤지컬을 통틀어서 1950년대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 1956)〉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1957)〉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대중적인 면에서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과 〈아가씨와 건달들(Guys and Dolls, 1950)〉을 더하면 50년대 브로드웨이는 걸출한 명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브로드웨이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뮤지컬 코미디보다 완성도 높은 뮤지컬 플레이가 양산된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텔레비전이 호황을 누리면서 브로드웨이는 예술지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는데 특히 1947년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와 죠셉 매카시(Joseph McCarthy) 상원의원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반미활동 조사와 심문도 끝나면서 소재의 범위도 넓어졌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매카시 상원의원의 활동은 정부관리, 정치인, 군인, 문화계 인사, 대학교수 등 지성인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력과 고통을 주었는데 뮤지컬계도 표현과 소재에 있어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의 숭고한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던 매카시즘이 사라지자 탄탄한 줄거리와 함께 많은 대사가 포함된 뮤지컬 플레이가 더욱 꽃을 피웠다.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 등 1940년대 명작들을 발표했던 작곡가들의 이름은 무대 위에서 사라졌지만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 등은 1950년대에도 건재했으며 생애의 마지막 명작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클래식 지휘자로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던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과 신예 프랭크 로서(Frank Loesser, 1910~1969), 프레데릭 로(Frederick Loewe, 1901~1988)의 등장은 1950년대 뮤지컬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다.

어빙 벌린의 〈콜 미 마담(Call Me Madam, 1950)〉으로 시작된 1950년은 브로드웨이의 호황을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콜 미 마담〉의 대표곡 "넌 그저 사랑에 빠진거야(You're Just in Love)"는 공연 중에 여러 차례 앙콜 요청을 받아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뮤지컬 코미디에서나 종종 볼 수 있었던 공연 중 앙콜 요청은 극적인 내용전개가 요구되는 뮤지컬 플레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노래의 폭발적 인기는 뮤지컬 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앙콜 요청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아가씨와 건달들(Guys and Dolls, 1950)〉은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명작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공연 되고 수많은 기록을 수립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공연된 〈아가씨와 건달들〉은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건달들이 일으키는 유쾌한 뮤지컬로 공연되자마자 전설이 되었다.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는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 1948)〉 이후 별다른 히트작을 내놓지 못했는데 그의 뮤지컬 인생의 마지막을 〈캉캉(Can Can, 1953〉과 〈실크 스타킹(Silk Stockings, 1955)〉으로 마감하며 거장으로서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1895-1960)의 콤비도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와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을 발표하며 1940년대보다 더욱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특히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은 발표당시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일반 관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고 특히 영화의 개봉과 더불어 대중적인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외에도 1950년대에는 작곡가 리처드 애들러(Richard Adler)와 작사가 제리 로스(Jerry Ross)가 합작한 〈파자마 게임(The Pajama Game, 1954)〉과 〈댐 양키즈(Damn Yankees, 1955)〉가 초연되었지만 역시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절정은 알란 제이 러너(Alan Jay Lerner, 1918~1986) 작사, 프레데릭 로(Frederick Loewe) 작곡의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 1956)〉와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 1930~) 작사,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작곡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1957)〉였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온 더 타운(On the Town, 1944)〉이후 뮤지컬 작곡가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계기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외에도 〈캔디드(Candide, 1957)〉를 남겼다. 현재는 작곡가로 더욱 유명한 스티븐 손드하임은 1950년대에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함께 〈집시(Gypsy, 1959)〉 등에 가사를 붙이며 작사가로 활동했다. 〈마이 페어 레이디〉는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피그말리온(Pygmalion)을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오늘날 완벽한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최고의 뮤지컬 중의 하나이다. 1964년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이 주연한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영화가 개봉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으로도 더욱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이다.

윤 우 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동그라미의 이미지

세상에서 원을 그리는 일만큼 재미나는 일은 없다. 운동장의 굴렁쇠 자욱은 동심이 되고, 잔디밭에 앉아 손수건 돌리는 짜릿한 긴장감이 즐겁고, 어둠을 돌리는 쥐불놀이 역시 신이 나며, 새벽녘 샘물에 살을 담가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꿀꺽할 일이다.

가난한 노래를 찧던 맷돌 돌아가는 소리는 지금도 정겨운 고향편지다. 도는 것은 항시 제자리를 기억하기 마련이다. 개새끼가 환한 전신주 밑에 오줌을 싸는 것도 다시 돌아오기 위한 원의 표시다. 시간의 흐름은 점에서 시작하여 원을 그린다. 네모난 시계도 바늘만큼은 원을 그린다.

인간이 사용하는 이동한 흔적은 원이 변형되어 네모가 되고 삼각형이 된다. 원이 변형되고 변질되어 갈 때, 긍정에서 부정이 되고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진행은 원이 이동한 거리며 의미다. 땅덩어리는 자전하며 공전하지 않는다.

여행과 문학기행도 사람이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생각 역시 점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원이 된다. 시작과 끝이 그러하고 출발역과 종착역이 그러함이다. 그러므로 삶은 원을 그리는 줄넘기며 들판을 도는 달리기다. 흔히 말하기를 성한 것이나 미친 것이나 돈 것은 돈 거다. 성한 것도 돌고 미친것도 돌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관계가 같이 돌면 돈 것이 아니라 율동이 된다. 같이 돌면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하나는 삼각형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모를 그릴 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인간사 싸움의 화해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선(善)은 점이다.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빛은 등을 빛살로 두드리고 소리는 귀를 맴돈다. 그래서 빛보다는 소리가 부드럽다. 사과는 손으로 따지만 밤송이는 장대로 턴다. 둘 다 둥글지만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다. 왜 공을 네모나게 만들지 않고 둥글게 만들었는가가 그 의미를 풀어주는 말이다.

세상에는 네모난 사람이 있는 가하면 삼각형의 사람의 있고 둥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복합된 갈등의 관계인 것이다. 모든 세상사 다 같이 원을 그리면 참으로 좋은 거다. 둥그런 병은 손안에 부드럽게 잡히지만 네모난 병은 손바닥에 닿아 공간을 만드는 이치와 같은 거다. 어느 날 화개장터에 가보니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살더라. 네모난 지폐를 세기보다는 동그란 동전을 먹고살기에 그렇더라. 다시 말하면 경기장도 마찬가지다. 네모난 경기장 보다는 원형 경기장이 훨씬 인간적이다. 회의장도 그렇다. 네모난 회의석이 권위적이라면 원탁 회의석은 우호적이다. 화친을 위해서는 항시 함께 둘러앉자는 주문을 한다.

이처럼 원의 근본적 속성은 화해이며 화친이다. 그래서 네모난 집보다는 에스키모의 이글루(iglio)가 따뜻하고 몽골인의 집 우르(천막집) 역시 화목하기 쉽기도 하다. 얼마나 가족을 하나로 동여매는 원의 공간인가.

지난 시간 한 바퀴 돌고 온 '포천문예대학 문학기행' 또한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린 시적 상상의 형상화가 아니던가. 정공채님이 거기에 있었고 이병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며 박경리님이 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섬진강은 흘렀다. 네모난 관광버스는 바퀴를 돌렸고 사람의 상상(想像)은 또 원을 그렸다.

안 익 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39)

승마와 포천

세계명작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트 버틀러가 스카렛이 낳은 아기를 보며 감격스럽게 말한다. "최고의 포니를 사주마." 서남아시아에는 하늘 아래 천국은 미녀의 가슴에, 그리고 말안장 위에 있다.'는 속담이 있다. 또, 영국 속담에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승마를 하면 3개월이 즐겁고, 말을 사면 6개월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3년이 즐겁고, 친구를 잘 사귀면 평생 즐겁다.'는 말이 있는데 '친구 같은 아내와 결혼하여 말을 사고 승마를 즐기면 평생 행복하다.'는 말로 필자는 요약 정리하기를 좋아한다.

서양의 최고급 귀족의 필수인 승마가 요즈음 건강 생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인기 스포츠가 되었으며 그 인기는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승마는 계절이 따로 없어요. 굳이 따지면 겨울이 제격이지요." 'R 승마클럽' L대표는 설명한다.

"승마는 튼튼해지기 보다는 건강해지는 운동입니다. 근력도 강해지지만 수직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장운동, 변비해소, 요실금 예방에 최고죠." 라고 자랑이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승마가 가능하며 학생과 여성 스포츠로 최고다. 승마 인구는 전국에 4,500여명이고 28곳의 승마장이 있으며 늘어날 추세란다.

년1,200여명을 배출하는 마사회 승마교육원은 '승마교육의 한국 메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고향 포천에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이 몇 곳 있어 승마 인구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내 고향 포천에는 조선시대 강무장(講武場)을 겸한 사냥터가 여러 곳 있었는데 요즈음 용어로 육군기동 전투 훈련장 겸 수렵장이었다. (왕방산, 보개산, 영평들판 등)왕이 진두지휘하는 전투 훈련으로 대신했던 시절이었다. 그 후, 집마다 잘 사는 집은 타고 다니는 나귀, 조랑말 등이 있었다.

필자의 기피울 옛집에도 나귀를 길렀는데 조부님이 주로 타셨고 내 백씨도 타는 걸 어려서 본 일이 있다.

일제 치하에는 지금의 천주교회 밑에 일본군 기마부대 훈련소가 1년 주둔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멋도 모르고 '우마니 놋다 헤이다이상....' 하며 놀았다.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서 경감이 포천서장으로 부임했던 47~48년에는 서장 부자(父子)는 매일 말을 타고 읍내를 질주하여 좋은 구경거리였다.

승마장도 많이 생겼으니 내 고향 포천에도 국제 승마 선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면 욕심일까?

초대 漢詩

嘆崇禮門燒失(탄숭례문소실)

가은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火魔何事禮門燒(화마하사예문소) 國寶相思怨屬僚(국보상사원속요)
화마가 어찌하여 숭례문을 태웠는고 국보라고 생각하니 속관들이 원망스럽다

民族矜持恒次動(민족긍지항차동) 我邦正氣瞬間搖(아방정기순가요)
민족의 긍지가 항사 동하는데 이 나라의 정기가 순간에 흔들리는구나

五千世統淵源像(오천세통연원상) 六百年來定彩標(육백년래정채표)
오천년 전통에 연원의 표상이고 육백년간 정해진 화표인데

痛憤衆生嘆息起(통분중생탄식기) 願祈速築萬人寥(원기속축만인요)
원통하고 분하도다 백성들의 탄식이 이는구나 기원하나니 속히 개축하여 만인을 잠잠하게 하소서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416호 11면 초대한시 내용중 承句 2행2번째 禮자를 倫자로 바로 잡습니다.